

이재명, 한일정상회담앞서 “굴종외교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

“물 다 마신 빈 컵 돌려주는 방한 안 돼” “독도 언급하면 회담장 박차고 나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對)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행하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틀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과거에 대한 일본의 담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서틀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라며 “물 반 컵을 건넬려면 나머지 반 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지소미아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주었다”며 “하지만 ‘짜사람 외교’에 대한 일본

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꼬집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해법, 과거사 사과, 독도 영유권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며칠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나아가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같은 말장난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뒤따라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일본 정부의 연이은 역사 왜곡 행보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토주권 수호는 한 치도 양보해서는 안 될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라.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발언했다.

서틀외교 복원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기시다 총리는 일본 국익의 관점에서 중국,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서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이번에는 또 뭘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적을 훼손하는 ‘호경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이슬기자

안형주 서구의원, 시설관리공단 내 자원회수센터 선별원 문제 지적

시설관리공단의 준비 미흡, 1년째 답답함 지속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이 시설관리공단 대책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내 자원회수센터가

확충공사를 위해 선별원들의 근로 기간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선별원들이 강제 휴직등으로 인해 생계에 차질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 공사로 직원들이 강제 휴직 또는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전준비 및 근로자와의 소통 부족을 꼬집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낙평)은 ‘작년 6월부터 노사정 협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선별원들 중 휴직희망자가 있어 대체업무 및 휴직 여부는 해당자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 하겠다’ 하였으며, 자원회수센터 확충공사로 인한 선별인력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선별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자원회수센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내 자원회수센터는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선별 및 파쇄, 압축하는 시설이다. 현 서창동에 있는 자원회수센터는 기존 부지에 재활용 선별동을 신축하고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 김재환기자

기시다 日총리, 국립현충원 참배

서울공항 도착 후 국립현충원 직행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실무 방문 형식의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 첫 일정이다.

일본 총리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2011년 노다 전 총리 이후 현직 총리로는 12년 만이다.

국립현충원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는 현충원으로 입장하다 멈춰 서 ‘국기에 대한 경례’ 구호에 태극기를 향해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태극기 옆에는 일본 국기도 게양됐다.

기시다 내외는 이어 현충탑으로 이동, 내외 모두 분향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묵념했다. 이어 방명록을 작성하고 현충원을 떠났다. 참배에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 등이 동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는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 정오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솔직한 의견을 나누겠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지역 정세에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대화의 흐름을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기시다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일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